

정부, 제주 해저고속철 일단 제동

본보 단독 입수 국토부 타당성 용역 결과

년1200만명 이용 불구 경제성은 낮아 “균형발전 차원 접근...대선 공약화 시급”

전남(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에 14년이 소요되고 20조813억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은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화도~제주 구간이 최종적으로 분석됐으며 연간 1200만명이 상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B/C(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71~0.78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치인 1에 못 미쳐 국책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일보가 단독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공

사비와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한 최적 노선은 목포~해남~보길도~추자도~화도~제주로 선정됐다. 이번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노선의 총 연장은 171km(육상 82km, 해상 89km)로 설정됐고, 사업비는 육상과 해상의 고속철 시속을 350km로 설정할 경우 20조813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상 구간 고속철의 시속을 200km로 하면 사업비는 17조6740억원으로 낮춰진다. 사업 기간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년, 실시설계 2년, 공사 기간 9.5년, 시운전 6개월 등 총 14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착공하면 2027년에 완공되는 것이다.

구간별 운행 시간은 시속 300km로 잡았을 때 서울~제주 2시간18분, 광주~제주 54분, 목포~제주 41분, 해남~제주 31분 등으로 조사됐다. 수요 분석은 2036년을 기준으로 제주주행 교통 수요의 58~61%인 1322만명~1258만명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기대보다 낮게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지침 적용시 B/C는 0.71~0.78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교통시설투자 지침 적용시에는 B/C가 0.55~0.60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연장이 89km로 세계 최장이 될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국내 기술력 미확보와 안전성, 연약지반 보강 등도 과제로 꼽았다.

이를 반영하듯, 국토부는 최근 전남도가 요청한 내년도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예산 100억원을 반영하

지 않았다. 하지만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 평가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토대로 관광, 문화, 기술력 축적 등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선 복선화 사업 등도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완공 이후, 국가 교통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시 4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4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의 국책사업 확정을 위해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국의 모든 것 가슴에 담아가겠다”

유럽 한인 차세대 83명 해남 땅끝서 국토 대장정 출발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 문화를 새롭게 배우고, 산과 바다, 강에 서린 모든 채취를 담아 돌아가겠습니다.”

유럽 20여개국의 한인 차세대들이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해 12일간의 국토 대장정에 나섰다.

자유협 한민총연합회(회장 박종범)가 주최한 ‘남북통일기원 유럽 한인 차세대 고국 국토 대장정’이 8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시작했다. 이번 대장정에 참석한 자유협 한인 차세대는 83명. 스웨덴·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네덜란드·스웨덴·폴란드·영국·덴마크 등 유럽 25개 국가의 한인 1.5세대와 재외교포 2세, 다문화가정 자녀(13명), 입양인(7명) 등이다. 이들은 오는 16일 임진각에 이르는 동안 11박 12일간 모국(母國)의 국토를 누비게 된다.

유럽지역 한인 차세대들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참가한 자유협 한인 차세대들은 각오가 남달랐다.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뿌리’가 같다는 공감대가 있어서인지 진한 우정을 나누며 대장정 기간 한국의 정과 문화를 배우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머니가 한국인으로 오스트리아 다문화가정 2세 라리사 코이들(여·22·Larisa Koidl)씨는 “이번 기회에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많은 문화를 배워갈 계획”이라며 “힘들겠지만, 아름다운 한국의 강과 산, 바다, 채취를 모두 가슴에 담아가겠다”고 말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일윤(30)씨는 “부모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30년 만에 처음 찾게 돼 가슴 벅차다”며 “저의 ‘뿌리’인 한국에서 많은 감동과 문화를 배우, 유럽에서도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입국한 이들은 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관람하고 7일에는 박람회장 국제관에서 일일



유럽에 살고 있는 한인 차세대들이 8일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국토대장정에 오르기 위해 해남 땅끝 전당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광주, 부여, 공주, 천안 등을 거쳐 임진각까지 11박12일간 모국(母國)의 산하를 중단할 계획이다. /해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봉사활동도 펼쳤다. 박종범 자유협 한민총연합회장은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유럽 각국 한인회의 협조로 많은 차세대가 참가했다”며 “열흘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면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이상득·정두언 동시 구속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윤식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상득(77) 전 의원과 정두언(55)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이 사실상 함께 돈을 받았다는 의미로, 금품수수 시기와 정황에 비해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그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고 현재

회기 중이기 때문에 우선 법원이 오는 9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모두 7억여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대선 이전인 2007년 말 임 회장으로 3억원의 가량을 받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공범으로 적시돼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비리가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통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즉각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박지영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의장 조호권 의원 선출

제6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재선의 조호권(53·북구 5) 의원이 선출됐다.

광주시의회는 6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 시의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 의원에 대한 신임투표를 한 결과 찬성 23표, 기권 3표로 조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뽑았다. 부의장에는 조선의 송경종(43·민주·광산 3)의원과 3선의 나종천(69·민주·남구 3) 의원이 선출됐다.

조 신임 의장은 “변화와 혁신, 새로운 생활정치를 실현할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시의회가 양 수레 바퀴처럼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도 마쳤다. 상임위원

들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서정성, 나종천, 문상필, 홍인화, 김민중, 정현애 ▲환경복지위원회=손재홍, 강은미, 조오섭, 진선희, 송경종, 정병문 ▲산업건설위원회=김영우, 김보현, 김영남, 조영표, 허문수, 전주연 ▲교육위원회=임동호, 박인화, 김선호, 정희곤, 이준문, 윤봉근, 이은방.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판매
062)226-0001
Mercedes-Benz

제8회 디지털 애니메이션 공모전

2012.7.2(월) ~ 7.26(목)

WAF 2012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분야: 애니메이션
공모주제: 자유(단, 19세 이상의 성인물이나 정기간행물법을 위반 하는 내용 제외)
공모대상: 일반 및 업체/학생(대학 졸업 작품을 포함한 초/중/고/대학생)
접수기간: 2012. 7. 2(월) ~ 7. 26(목)
접수방법: WAF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www.iwaf.or.kr
문의처: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Tel. 062)610-2412 Fax. 062)671-2450 / E-mail, waf@gitct.or.kr

구분	일반	학생	준격
대상	1명(1천만원)	1명(5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우수상	1명(5백만원)	1명(3백만원)	광주광역시장상
우수상	1명(250만원)	2명(1백만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
장려상	1명(1백만원)	3명(50만원)	

*선정자 특전(일반 및 업체만 해당)
- 진흥원 기획창작스튜디오운영지원사업 지원 시 우대(제작지원 최대 1억)
- 국내·외 공모전 출품 지원
- 사업화 지원